

중국 벽 높았다...남·여 탁구 단체전 ‘은메달’

광주시청 김영건·김정길·서수연
리우 이어 2회 연속 메달 획득
오늘 박진철 TT1-2 체급 단체전
프랑스 상대 마지막 금메달 도전

대한민국 장애인 탁구 대표팀이 남녀 모두 중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영건(37), 김정길(35·이상 광주시청), 백영복(44·장수군장애인체육회)은 2일 오전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남자탁구 단체전(스포츠등급 TT4-5) 결승에서 중국의 차오닝닝, 귀싱위안, 장연에 매치스코어 0-2로 패했다.

이로써 2016년 리우 대회 금메달을 획득했던 한국은 도쿄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탁구 단체전에서는 첫 은메달이다.

서수연(35·광주시청)과 이미규(33·울산시 장애인체육회), 윤지유(21·성남시청)도 여자 탁구 단체(스포츠등급 TT1-3) 결승에서 중국의 리첸-류징-쉐위안에 0-2로 패해 은메달을 기록했다.

도쿄 패럴림픽 탁구 단체전은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복식, 단식, 단식순으로 진행된다.

남자대표팀은 1복식에서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김정길-김영건 조가 중국의 차오닝닝-귀싱위안 조에 0-3(5-11 11-13 11-13)으로 패하며 힘겹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첫 두 세트를 모두 내준 한국은 3세트에서 5-3으로 앞서며 기세를 올려 봤다. 김정길의 백드라이브가 날카롭게 찔렀다.

하지만 중국이 6-6으로 따라붙었고, 시소게임이 이어졌다.

9-10으로 밀리던 한국은 타임아웃 직후 2득점을 올려 11-10으로 승부를 뒤집었지만, 듀스 점전 끝에 11-13으로 패했다.

2단식에서는 김정길이 한국 장애인 여자 탁구 선수 문성혜의 남편인 차오닝닝과 맞붙었다.

김정길은 상대의 강한 백드라이브에 밀리며 5-11로 첫 세트를 내줬다.

2세트에서는 김정길의 노련한 코스 공략으

로 8-3으로 앞서 나갔고, 상대가 8-9까지 뒤를 쫓았지만, 리드를 지킨 김정길이 2세트를 가져왔다.

경기는 팽팽했다. 3세트에서는 다시 차오닝닝이 11-8로 점수를 따냈고, 4세트에서는 김정길이 막판 불꽃같은 포어드라이브로 이겨 세트스코어 2-2로 균형을 맞췄다.

승부는 마지막 5세트에서 갈렸다. 차오닝닝이 4-0으로 빠르게 점수를 냈고, 김정길이 추격을 시작했으나 4-11로 패했다.

세트 스코어는 2-3(5-11 11-8 8-11 11-9 4-11).

차오닝닝이 복식, 단식에서 ‘2점’을 잡아내는 활약으로 한국에 빼어난 패배를 안기며 금메달을 가져갔다.

여자 선수들도 중국의 벽에 막혔다.

서수연, 이미규, 윤지유는 2016년 리우 대회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합작했고 이번 대회에서 한국 장애인 여자탁구 첫 금메달에 도전했으나 아쉬움을 남겼다.

기존 여자탁구 단체전 최고 성적은 2012 런던 대회에서 최현자, 정상숙, 조정희가 이 종목에서 중국에 0-3으로 패하며 따낸 은메달이다.

5년 전 리우 대회 때는 이미규-서수연-윤지유와 함께 강희정-김 옥-정영아가 TT4-5체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이날 1복식 초반 이미규-윤지유 조가 연달아 두 세트를 쟁기며 기선을 제압하는 듯했다.

한국이 첫 두 세트를 11-6, 11-9로 잡으며 앞서 나갔다.

하지만 중국 쉐위안-리첸 조가 연달아 세 세트를 잡아 승부를 뒤집으면서 한국은 2-3(11-6 11-9 7-11 9-11 9-11)으로 역전패했다.

승부차인 복식을 내준 한국은 2단식에서 윤지유를 앞세워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단식 4강전에서 쉐위안과 폴세트 점전 끝에 2-3으로 패한 윤지유는 이날 재대결에서 설욕을 다짐했다. 그러나 개인 단식 2연패를 거둔 ‘최강자’ 쉐위안은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1세트에서 윤지유는 쉐위안의 양쪽으로 갈라치는 코스 공략에 고전했다.



2일 오후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남자탁구 단체전(스포츠등급 TT4-5)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백영복, 김정길, 김영건(위)과 여자 탁구 단체전(스포츠등급 TT1-3)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이미규, 서수연, 윤지유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11-10, 역전에 성공한 후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으나 듀스 점전에서 13-15로 패했다. 마음을 다잡은 윤지유는 2세트에서 11-2, 3세트에서 11-6으로 승리했으나, 4세트에서 결국 7-11로 패했다.

여자 대표팀은 리우 대회 동메달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며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런던 대회 단체전 은메달 이후 9년 만의 여자탁구 단체전 최고 성적이다.

한편 3일 오후 5시에는 남자 TT1-2 체급 단체전에서 차수용(41·대구시), 박진철(39·광주시청), 김현욱(26·울산시장애인체육회)이 프랑스와의 결승전에서 마지막 금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호날두, A매치 최다 ‘111호골 신기록’

아일랜드와 월드컵 예선전
후반 동점골·역전골 작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22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후반 막판 ‘극장 멀티 헤더골’을 터트리며 역대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최다골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포르투갈은 2일(한국시간) 포르투갈 알가르브의 이스타디우 알가르브에서 열린 아일랜드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예선 A조 4차전 홈 경기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44분부터 잇달아 터진 호날두의 동점골과 역전 결승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포르투갈이 일방적으로 공세를 펼쳤지만 선제골은 아일랜드의 몫이었다.

아일랜드는 전반 45분 제이미 맥그래스(세인트 미렌)의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존 이건(셰필드)이 머리로 볼의 방향을 바꿔 포르투

갈 골키퍼를 흔들며 전반을 1-0으로 마쳤다. 이때 ‘골잡이’ 호날두가 해골사로 나섰다.

호날두는 후반 44분 곤살로 게데스(발렌시아)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구석으로 돌파하며 올린 크로스를 골치여 정면 부근에서 번쩍 솟아올라 헤더로 천금의 동점골을 뽑아냈다.

호날두의 A매치 110호골이었다.

지난 6월 24일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넣어 A매치 109호골을 기록, 이란의 ‘축구 레전드’ 알리 다에이(A매치 109골)가 보유했던 A매치 역대 최다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호날두는 ‘A매치 역대 최다골 주인공’이 됐다.

호날두는 후반 추가시간 주앙 마리우(벤피카)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투입한 크로스를 또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헤더로 역전 결승골을 터트리 자신의 A매치 최다골을 111호골로 늘리면서 포르투갈의 2-1 역전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가 2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카타르월드컵 유럽예선 A조 4차전에서 후반 51분 헤딩결승골을 터트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전남 양양국제사이클 금빛 질주

강진군청·전남체중 종합우승
전남체고 준우승·나주시청 3위
김채연·김상표 대회 3관왕 달성

전남 사이클이 8·15 경축 2021 양양 국제사이클대회 및 전국사이클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휩쓸었다.

최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대회에서 강진군청이 남일부 종합우승, 나주시청이 여일부 종합 3위, 전남체고는 고등부 준우승, 전남체중과 빙가람중이 중등부에서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여중부에서는 전남팀끼리 열린 우승경쟁을 펼쳤다.

여중부 단체스프린트와 단체추발 2km에서 전남체중이 우승을, 빙가람중이 준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송유진(전남체중)이 200m 2위, 최연경(전남체중)이 득주 500m와 개인추발 1km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체중을 종합우승으로 이끌었다.

남고부에서는 금성고 김정민이 스크래치 7.5km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조운상(금성고)도 제외경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진군청이 최근 양양에서 열린 8·15경축2021양양국제사이클대회에서 남자일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여고부는 전남체고 김채연이 3관왕을 달성하며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김채연은 1Lap에서 25초325, 득주경기 500m에서 36초101로 개인전 2관왕을 달성했다. 이어 단체스프린트에서 전남체고는 1분11초109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전북체고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일반부에서도 전남사이클은 남녀팀 모두 폭풍 질주를 선보였다.

강진군청은 남일부 단체추발 4km에서 4

분7초823의 기록으로 대회신기록 우승을 차지했고, 나주시청도 여일부 단체스프린트에서 1분7초001로 부산 스포원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상표(강진군청)는 템포레이스 10km와 제외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고, 신동인(강진군청)과 조선영(나주시청)도 오픈엄과 스프린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최진화 기자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울스타 대신 유망주 파견
KBO 운영 시스템 개선

지난달 끝난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여러 논란을 낳았던 한국 야구가 내년 아시안게임에는 울스타 대신 유망주들을 출전시킨다. KBO는 내부적으로 국가대표팀 운영 중장

기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표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을 2일 발표했다.

KBO 발표안에 따르면 우선 기술위원회 구성을 개편한 뒤 ▲감독 선임 방식 ▲코치진 구성 ▲선수 선발과 지원 등 대표팀 운영 전반에 걸쳐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표팀 코치나 선수 선발을 사실상 감독에게 위임했으나 향후에는 기술위원회가

직접 챙길 가능성도 있다.

기술위원회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기인은 물론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주요 국제 대회에는 맞춤형 선수들을 파견한다.

아마추어 주관 국제 대회의 경우 대회별로 프로선수들의 참가 연령을 제한해 유망주 위주로 출전시킬 방침이다. /연합뉴스